

일본 경제 동향 (2014. 8월)

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발생

< 목 차 >

I . 일본 경제 지표	1
II 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소비세인상 영향으로 경가지표는 계속 답보상태	2
2. 7월 무역적자 확대	7
3. 고주가·저금리·엔고	9
4. 해외직접투자, 2개월 연속 감소	11
III . 일본의 주요 정책	13
1. 경상수지 적자 문제	13
IV 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6
1. 7월 대일무역적자 축소로 반전	16
2.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인투자 늘어야	18
3. 일본인 한국방문 감소, 한국인 일본방문 크게 증가	20
V . 참고 자료	21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21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	23

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2	2013	2013	2014	2014		
			4/4	1/4	5월	6월	7월
GDP증가율(연율,%)	1.4	1.6	0.3	6.7	-6.8(p) 2/4분기		
경기동향지수(2010=100)	-	-	111.5	-	111.2	109.7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0.6	△0.8	1.9	2.9	0.7	-3.4	-
소비자물가	△0.1	0.4	0.3	0.2	0.4	0.0	-
상승율(%)							
실업율(%)	4.3	4.0	3.9	3.6	3.5	3.7	-
수출(조엔)	63.7	69.8	18.1	17.5	5.6	5.9	6.2
수입(조엔)	70.7	81.3	21.8	22.4	6.5	6.8	7.2
무역수지(조엔)	△8.4	△11.5	△3.7	△5.0	△0.9	△0.8	△1.0
경상수지(조엔)	4.8	3.3	△1.4	△0.9	0.5	△0.4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9.8	13.2	3.1	2.6	0.7	0.7	-
환율	달러	80.1	97.7	100.5	102.8	101.8	102.1
	원화(100엔)	1,413	1,123	1,035.7	1,039	1,007	999.0
금리(10년물,%)	0.78	0.72	0.64	0.625	0.59	0.59	0.54
주가(닛케이)	9,612	13,651	15,388	14,958	14,343	15,131	15,379

주: (p)는 1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□ (경기판단) 소비세인상 영향 남아있어 경가지표는 계속 답보상태

○ ‘14.6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09.7로 2개월만에 악화

□ (소비자물가) 6월 제자리 걸음

○ ‘14.6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.0% 상승

□ (무역수지) 7월 무역적자폭 확대

○ ‘14.7월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전월보다 0.1조 엔 확대

□ (환율) ‘14.7월 대미달러 환율은 전월보다 엔고

○ ‘14.7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1.7엔으로 전월대비 0.4% 엔고

* ‘14.7월 엔화의 대원화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03원으로 0.4% 엔고·원저

Ⅱ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소비세인상 영향으로 경기지표는 계속 답보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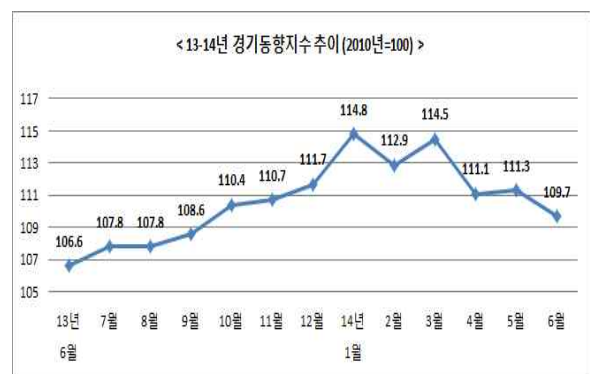
□ (총 합)

○ 6월에도 소비세인상전 가수요의 반작용이 계속됨에 따라, 경기동향지수에 기초한 일본 내각부의 경기기조판단은 3개월 연속 답보상태를 유지

- '14.6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09.7로 전월보다 1.5p하락, 2개월만에 악화

* 특히 기업의 생산과 출하 부진이 경기동향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

- 그러나 선행지수는 105.9로 전월보다 1.1p 상승, 5개월만에 개선



자료 : 내각부

□ (전 망)

○ 일본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걸쳐 완만한 성장패도를 그릴 것으로 예상

- 2분기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의 반작용에 의한 수요 감소로 GDP가 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, 3분기 이후에는 설비투자 확대, 개인소비도 회복될 전망

○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도 있음

- 일본은행은 2014년도 경제성장율을 1%로 예상하고 있는데, 10월 발표예정인 「경제물가 전망」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0%대 후반으로 하향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

□ (시사점)

○ 일본경제의 최대 우려요소는 해외수요임

- 2분기는 수출이 전기비 0.4% 감소했는데 이는 일본의 국내생산능력이 감소하여 해외수요를 소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다, 해외생산이전으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아, 수출 주도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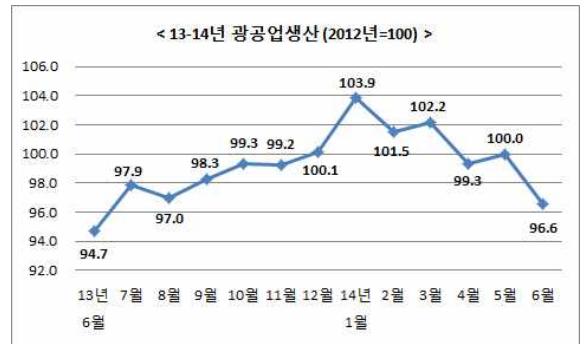
□ (GDP) 2014. 2분기 실질성장률 -6.8%, 예상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

- 2014년 2분기 실질 GDP성장률(1차 속보치)은 -6.8%로 2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,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임
- 특히 GDP의 60%를 점하는 소비가 전기비 5.0%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컸음
 - 소비는 7분기 만에 감소했는데,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감소폭은 1997년 2분기 소비세인상 시 감소폭 3.5%를 상회
- 주택투자가 10.3% 감소, 설비투자과 공공투자도 각각 2.5% 및 0.5% 감소
 - 특히, 공공투자의 감소에는 일본정부의 오판으로 인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, 소비세 인상 대책으로 금년 2월 5.5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, 2분기는 일부 시기를 놓친 데다 일손부족도 착공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음
-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1.1p로 4분기 만에 플러스
 - 실질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, 그 이상으로 수입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임
- 일본의 12개 민간싱크탱크들의 평균 전망치에 의하면, 금년 4분기에도 GDP성장률은 2.1%로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, 1%이하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상회할 전망
- 특히 내년 소비세 10% 인상여부의 판단재료가 되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
 - 일본정부는 민간투자의 부양을 위해, 예산편성에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외에, 주택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세제우대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고, 무엇보다도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할 것으로 관측
- 다만, 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는 긴급경제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

□ (광공업생산) 3.3% 감소, 1년 9개월만에 약세로 하향수정

- '14.6월 광공업생산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계속으로 3.3% 감소, 시장에서의 예상치 1%정도를 크게 하회

- 전체 15개 업종 14개 업종이 감소한 가운데,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계가 3.4% 감소한 외에, 반도체 제조장비 등 범용·생산용·업무용 기계가 3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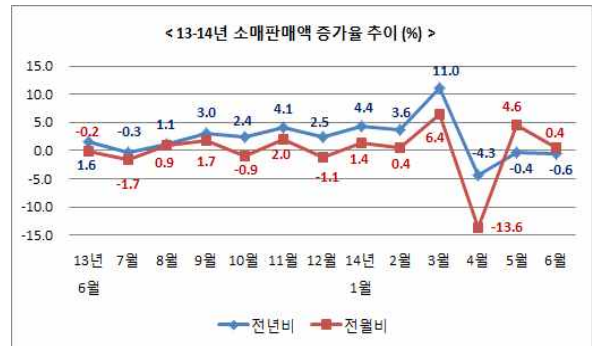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제산업성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생산에 대한 기초판단을 1년 9개월만에 약세추이로 하향 수정했으나, 7월에는 2.5%, 8월에는 1.1% 상승,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

□ (소 비) 회복세 주춤, 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 전망

- ‘14. 5월에 4.6%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업판매액이 6월에는 전월대비 0.4% 증가에 그침
- 특히 전년동월비로는 0.6% 감소함에 따라 3개월 연속 감소



자료: 경제산업성

-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으로 자동차와 가전 등의 판매가 감소한데다 6월에는 전년에 비하여 토요일이 하루 적었던 영향도 있음

- 일각에서는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시 6월의 소매업판매액 감소폭 2.1%에 비하면 이번 감소폭은 적은 편이며,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감소폭이 한정적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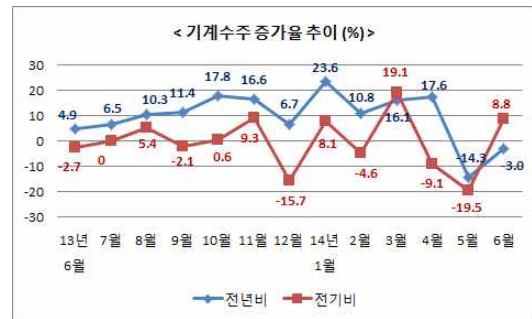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당분간은 소비자마인드를 냉각시키는 큰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,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□ (설비투자) 6월 기계수주액 크게 증가

- ‘14.6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이 큰 감소폭을 보였던 전월 대비 8.8% 증가로 반전
- 특히 제조업의 기계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, 15개 업종중 8개 업종이 증가

- 반도체 제조장치와 조선업으로부터의 발주가 많았던 한편,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으로부터의 주문이 크게 증가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는 기계 수주에 대한 기초판단을 전월의 답보 상태에서 일진일퇴 상태로 하향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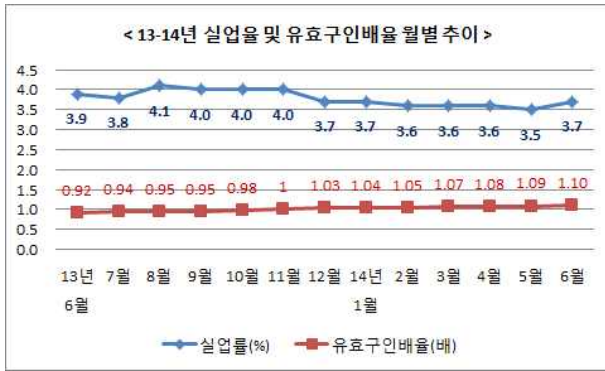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내각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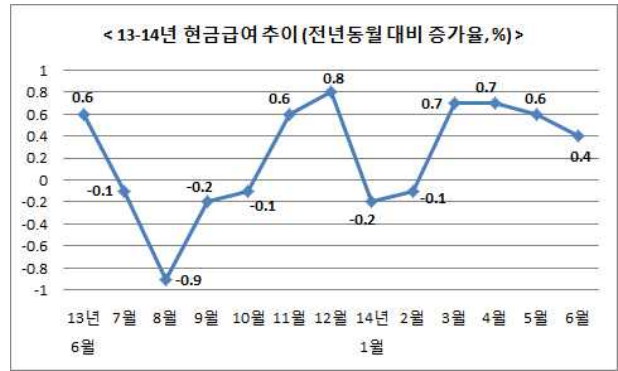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앞으로 기업 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는 증가할 전망
- 기계수주액이 2분기의 10.4% 감소에서 3분기에는 2.9% 증가로 반전
-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의하면, 2014년도 전산업의 설비투자가 2013년도에 비하여 15.1%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
- 다만, 일본 국내 생산능력 증강보다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투자가 30%가 가까운 비중을 점하고 있음

□ (고 용) 유효구인배율 19개월 연속 개선

- 2014년 6월의 유효구인배율이 1.10배로 전월보다 0.01p 상승함으로써 19개월 연속 상승, 22년 만에 최고수준 기록
- 다만 6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의 3.5%에서 3.7%로 악화
-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, 일손부족 등을 배경으로 고용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
- 임금은 현금 급여총액이 전년 동월비 0.4%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3.8% 감소,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현금급여액의 실질감소율이 확대
- 실질임금 감소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나, 앞으로 양호한 고용환경이 임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

자료: 후생노동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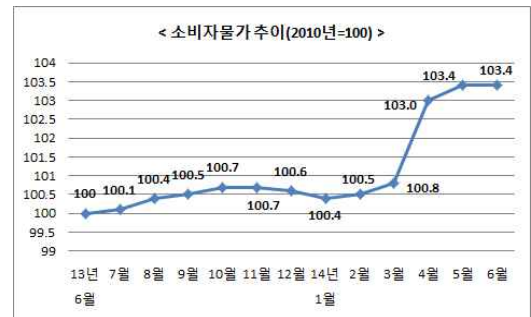
자료: 후생노동성

□ (소비자물가) 전월비 0.0%로 둔화

- '14.6월 소비자물가상승률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은 전월 대비 0.0%로 전월의 0.4%에서 둔화

-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3.3% 상승, 13개월 연속 상승

- 일본은행에 의하면, 소비세 인상상의 물가상승 효과가 2.0%로, 소비세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3%



자료: 총무성

- 또 엔저의 효과가 약해짐에 따라 에너지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된 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에 기여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.3%로 전월보다 0.1p 상승, 물가의 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음
- 당분간 소비세 인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소비자 심리의 회복으로 가격인상(소비세인상분의 가격전가)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, 앞으로 상승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

2. 7월 무역적자 확대

□ (총 합) '14.7월 무역적자는 1조 엔으로 6월보다 0.1조 엔 확대

- '14.7월 무역수지는 2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월의 0.8조 엔에서 1조 엔으로 확대
- 7월 무역적자 축소는 전월비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은 데 따른 것임
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,720억 엔에서 3,216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, 對미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,778억 엔에서 4,837억 엔으로 확대

< 2014년 7월 일본의 수출입 (단위: 조엔, %) >

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수 출	5.9	-2.0	5.4	6.2	3.9	5.1	41.2	3.3
수 입	6.8	8.4	4.6	7.2	2.3	5.9	49.8	8.8
무역수지	-0.8	0.6	-0.1	-1.0	-0.07	0.1	-8.6	2.7

주 : 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조엔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출) 금액, 수량 모두 증가

- '14.7월 수출은 6월보다 5.1% 증가한 6.2조엔
 - 수출수량도 전월보다 0.9% 증가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자동차부품, 플라스틱 순으로, 전월과 비교하여 광학기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
 - 5대 수출품목 중 철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,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8.7% 증가, 증가폭이 가장 큼
- 주요 수출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, 對EU 수출증가율이 7.7%로 가장 높음

- 엔저하에서도 최근 일본의 수출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데는 과거 엔고기간 중 해외생산증가로 현지생산에 의한 수출대체, 환율변동에 의한 수출가격전가(달러화 표시 수출가격 인하)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

<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9,202	0.9	21.1	9,950	8.1	8.1	61,436	5.1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901	-8.7	1.7	3,143	-0.7	8.3	20,062	-0.6
3	철강	3,329	-0.4	2.5	3,112	-4.2	-6.5	22,521	1.7
4	자동차부품	2,819	-3.2	9.2	3,065	3.4	8.7	19,810	-0.1
5	플라스틱	1,945	-1.7	-3.1	2,098	6.4	7.9	13,742	7.3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0,959	1.5	4.4	11,328	2.6	3.4	74,657	7.6
2	미국	11,072	-2.2	9.0	11,283	2.1	1.9	75,924	3.5
3	ASEAN	9,015	-7.1	5.3	9,296	3.7	3.1	62,199	-1.1
4	EU	6,006	6.4	-0.9	6,471	10.2	7.7	43,484	12.3
5	한국	4,222	-7.0	0.1	4,381	-7.7	3.8	30,957	-4.6
6	대만	3,503	-9.1	3.5	3,674	11.7	4.9	24,267	2.3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에너지의 수입확대로 전월보다 증가

- ‘14.7월의 수입은 6월보다 5.9% 증가한 7.2조엔
 - 수입수량은 전월 대비 0.4% 감소
- 에너지 수입의 증가와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 감소가 수입증가의 주된 원인
- 수입액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의류 및 동 부속품, 석유제품,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
 -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증가율이 25.4%로 가장 높음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만이 감소한 반면, 여타 국가·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

<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10,621	8.3	12.4	11,701	6.9	10.1	84,405	5.4
2	액화천연가스	5,837	7.6	3.5	6,673	7.4	14.3	45,740	10.9
3	의류·동부속품	2,068	-1.2	0.4	2,593	-4.6	25.4	17,076	0.8
4	석유제품	2,210	35.5	15.3	2,377	23.3	7.6	16,182	5.4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326	5.5	6.3	2,210	-0.8	-5.0	16,406	24.2

자료: 일본 재무성

< 2014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단위: 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4,679	10.5	3.4	14,544	-2.5	-1.0	107,084	11.4
2	ASEAN	9,457	4.1	-0.6	10,322	-0.1	9.1	71,404	8.1
3	EU	6,528	6.8	0	6,966	0.9	6.7	47,560	10.4
4	미국	6,294	6.8	3.0	6,446	6.2	2.4	43,236	11.3
5	호주	4,039	-2.9	3.1	4,651	0.4	15.1	29,723	3.7
8	한국	2,789	9.0	-1.6	3,037	-0.1	8.9	20,610	3.8

자료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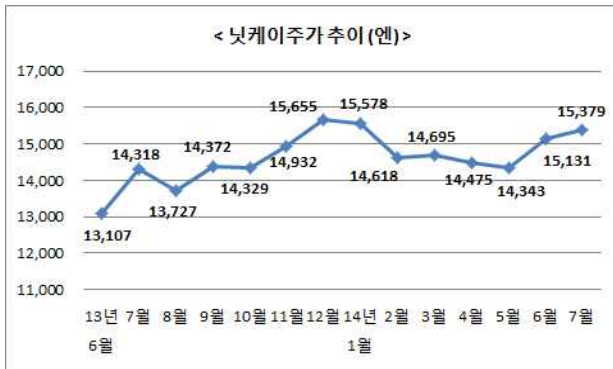
3. 고주가 · 저금리 · 엔고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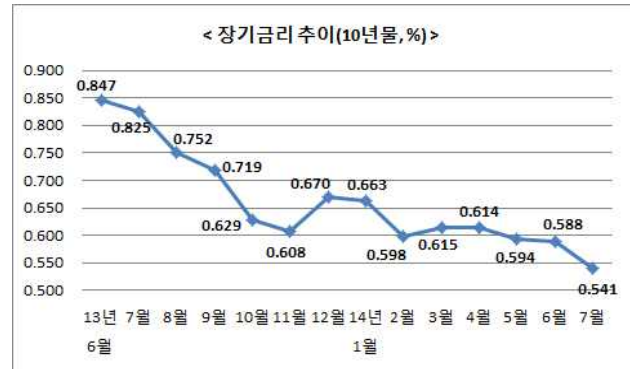
- ‘14.7월 평균 주가는 미국 주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1.6% 상승한 15,379엔
- 그러나 8월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가하락 영향을 받아 한때 14,700엔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

□ (금 리)

- ‘14.7월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.0%p 하락한 0.541%
- 8월 들어서는 8월 22일 기준으로 0.505%까지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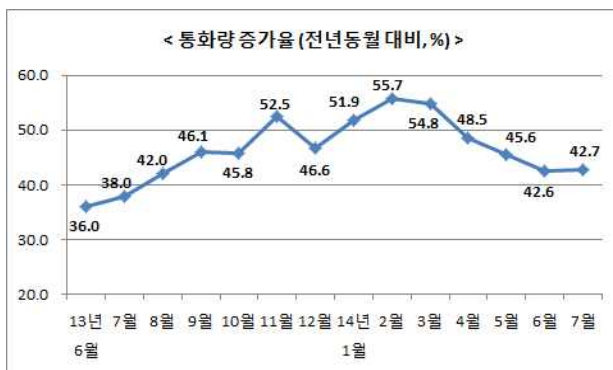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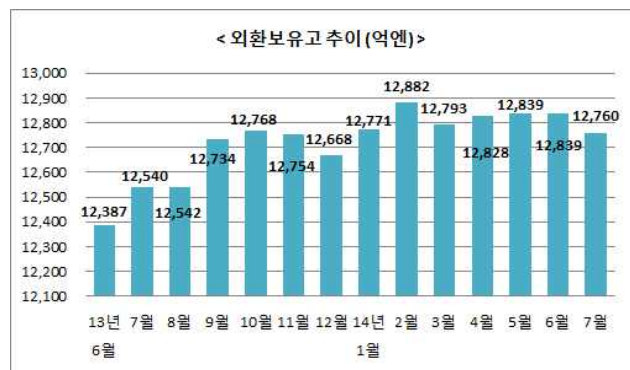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- ‘14.7월 머니트리베이스(평잔)기준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42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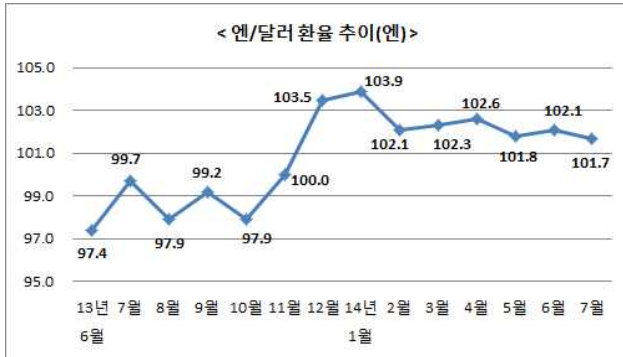
자료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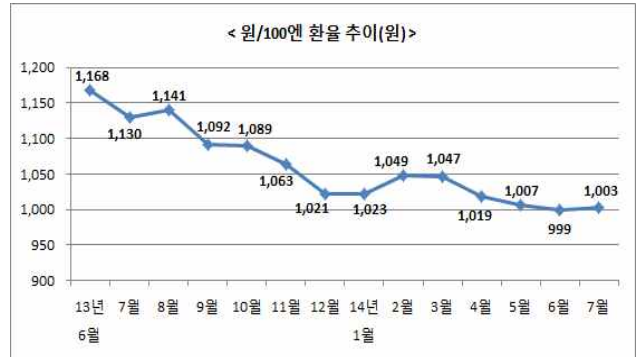
자료: 재무성

□ (환율)

- ‘14.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01.7엔으로 6월보다 0.4% 엔고
 - 8월 들어서는 미국 FRB의 금리인상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8월 22일 현재 103엔대 후반까지 엔저 진행
-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융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, 미국의 경기회복,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일시적인 침체 영향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- ‘14.7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03원으로 6월의 999원에 비해 0.4% 엔고·원저



자료: 일본은행



자료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, 2개월 연속 감소

□ (동 향)

- '14.6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,757억 엔으로 전월대비 8.1% 감소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기준, 억엔, %) >

		2013	2014	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금 액		131,946	12,581	6,339	7,376	6,096	7,356	6,757
증가율	전기비	34.9	-27.5	-49.6	16.4	-17.4	20.7	-8.1
	전년동기비	34.9	52.8	56.7	-21.0	-59.4	-18.4	-21.4

자료: 일본 재무성

-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임
 - 전월에 대폭 증가했던 對 미국 직접투자가 6월에는 45.4% 감소로 반전
 - 對 유럽지역 직접투자도 6월에는 49.1% 감소로 반전
 - 반면 전월에 감소했던 대 아시아 직접투자는 6월에는 86.4%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, 對 한국 투자, 對 중국투자가 모두 큰 폭의 감소로 반전

< 2014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3년	2014.5월			2014.6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31,946	7,356	20.7	-18.4	6,757	-8.1	-21.4
아시아	39,294	1,520	-27.0	-57.3	2,834	86.4	-17.0
중 국	8,855	476	13.9	-37.9	834	75.2	20.5
한 국	3,209	15	-92.0	-89.8	201	1,240.0	-41.4
북 미	45,698	2,001	399.0	-0.5	1,125	-80.0	-14.1
미 국	42,933	1,928	1,277.0	-0.9	1,053	-45.4	-18.0
중남미	9,902	355	-72.0	-43.0	69	-80.6	-81.6
유 럽	31,567	3,135	89.3	9.7	1,596	-49.1	-30.7
대양주	5,895	-34	-	-	682	-	-26.6

자료: 일본 재무성

□ (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)

-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, 2013년 말 기준,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18조 엔으로 처음으로 100조 엔을 상회
 -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‘13년 신규투자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, 금융 등 비제조업(LIXIL그룹, 소프트뱅크 등의 대형투자)이 투자를 견인
-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2가지로 집약
 - 첫째, M&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, ‘13.4월~’14.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
 -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&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
 - 둘째, 엔저에도 불구하고,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
 -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,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

Ⅲ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경상수지 적자문제

□ 배경

- 일본의 경상수지가 2013년 하반기에 이어 2014년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
 - 일본 재무성의 2014년 상반기 국제수지 속보에 의하면, 201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5,075억엔 적자로 상반기 적자로는 1985년 이후 처음임
 - 화력발전 연료 등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, 수출은 부진하여 무역적자가 6조엔에 달함

□ 원인

- 경상수지가 대폭 악화된 것은 무역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, 2014년 상반기 중 무역수지는 6조 1,124억엔 적자로 전년동기비 78%나 증가, 1996년 이후 최대규모
-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
 - 무엇보다도 수출이 부진, 상반기중 증가율이 8.1%로 수입증가율 14.7%에 비하여 소폭에 그침
 - 엔저가 오히려 엔화표시수입가격 상승을 통하여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작용
 -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, 수출이 엔저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환경인 반면, 수입은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연료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엔저로 수입가격이 상승
- 그동안 일본의 민간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2013년에 악화된 경상수지가 엔저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2014년에는 완만하나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음
-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, 공장의 해외이전 및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내 공급력 저하,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내수를 수입으로 보전하는 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배경임

- 과거 엔고국면에서는 전자업계 등에서 공장의 폐쇄나 해외이전이 잇따랐음
- 예를 들면 전자부품의 경우 금년 1-5월기간중 수입이 1조 1,601억엔으로 37% 증가함으로써 국내 공급중 수입비율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 2012년 실적보다도 9%p 높은 38%로 상승한 반면, 국내생산은 16% 증가에 그침
- 다만, 금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음
- 정부개발원조 등 무상자금의 거래상황을 나타내는 제 2차 소득수지가 1조 1,397억 엔 적자로 2013년 연간 적자액 9,882억엔을 상회
- 일본기업들에 의한 해외배상금지불액 등이 많았기 때문임

□ 전망

- 위에서 언급한 정부개발원조와 같은 특수요인도 있어 시장에서는 2014년 연간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
- 또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다시 증가하여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님
- 미즈호 종합연구소에 의하면 구미와 중국의 경기둔화가 수출부진의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면서, 204년 하반기에 걸쳐 엔저에 의한 수출증가효과가 나타나 연간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다만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있음
-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, 시장에서는 2014년 연간으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

□ 시사점

-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,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필요한 자금조달을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,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에 투자하는데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 금리가 불안정하게 될 리스크도 따르기 마련임
- 2014년도판 일본경제재정백서는 경수상수지 적자문제에 대한 해법으로, 일손부족 등에 의한 공급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

- 나아가 수출품목의 비교우위가 변화했기 때문에,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
- 이에 대내외 생산공정을 재검토하여 해외기업들에는 자본재를 수출, 국내거점은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는 글로벌·밸류·체인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
- 나아가 일본, 그리고 한국과 같이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, 특히 개인용 서비스의 소비제약으로 생산이 감소하게 됨
- 이에 의료, 간병 여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면 앞으로 고령화하는 해외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됨
-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수익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의료, 간병 등과 같은 분야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, 이것이 경상수지적자 대책으로 이어지게 됨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7월 대일무역적자 축소로 반전

□ (총 합)

- '14.7월 대일무역적자는 16억 달러, 6월에 비해 2억달러 축소
- 대일 수출은 30억 달러, 대일 수입은 46억 달러

< 2014년 7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단위: 억달러,%) >

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수출	26	-9.3	-5.5	30	5.9	17.2	192	-3.8
대일수입	44	-6.6	1.0	46	-9.5	6.0	314	-11.8
무역수지	-18	0	2	-16	-7	-2	-122	-35

주)수출, 수입의 증감은 %, 무역수지의 증감은 억달러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출)

- '14.7월의 대일 수출은 6월보다 17.2% 증가
-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이 0.9% 증가, 일본의 수입도 5.9%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대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. 7월	5.9	17.2	5.4	0.9	2.3	5.9
2014.1-7월	-3.8	-	2.9	-	8.8	-

- '14.7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전자부품과 금속광물 2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들은 6월보다 증가
-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위로 광물성연료(57.8%), 산업용전자제품(55.7%), 석유화학제품(16.3%), 기계요소공구·금형(15.8%), 수송기계(13.3%), 정밀화학제품(11.7%), 철강제품(1.5%), 농산물(1.0%) 순

- 감소품목은 감소율 순위로 전자부품(-4.4%), 금속광물(-1.1%) 순

< 2014년 7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계	2,561	-9.3	-5.5	3,006	5.9	17.4	19,197	-3.8
1	광물성연료	424	-31.5	-11.5	669	37.5	57.8	3,913	-18.4
2	철강제품	342	25.0	0.0	347	7.3	1.5	2,457	20.9
3	산업용전자제품	167	-47.0	-45.2	260	-7.3	55.7	1,650	-11.6
4	전자부품	203	-19.3	-1.5	194	-26.2	-4.4	1,435	-12.0
5	석유화학제품	165	-0.6	27.9	192	15.5	16.3	980	-14.6
6	정밀화학제품	128	-4.5	0.0	143	8.5	11.7	896	4.3
7	수송기계	105	21.6	1.9	119	-10.4	13.3	762	11.8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101	31.9	2.0	117	35.3	15.8	678	19.4
9	농산물	97	8.0	10.2	98	5.3	1.0	647	7.0
10	금속광물	89	-18.5	-8.2	88	-28.1	-1.1	619	-19.0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입)

- '14.7월의 대일 수입은 6월보다 6% 증가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4. 7월	-9.5	6.0	5.8	8.3
2014. 1-7월	-11.8	-	3.0	-

- '14.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, 정밀기계, 산업용전자제품, 기초산업기계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이 6월보다 증가
 -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위로 석유화학제품(27.3%), 산업기계(19.6%), 철강제품(12.9%), 플라스틱제품(8.5%), 수송기계(7.4%), 정밀화학제품(7.0%), 전자부품(5.5%) 순
 - 감소품목은 감소율 순위로 정밀기계(-25.7%), 산업용전자제품(-22.4%), 기초산업기계(-3.2%) 순

< 2014년 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단위: 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4.6월			2014.7월			2014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4,366	-6.6	1.0	4,629	-9.5	6.6	31,413	-11.8
1	철강제품	672	-5.6	-5.2	759	-1.4	12.9	4,993	-10.2
2.	석유화학제품	451	-17.2	-0.9	574	3.3	27.3	3,459	-15.3
3	전자부품	487	-13.1	3.6	514	-11.9	5.5	3,459	-15.2
4	정밀화학제품	356	2.3	6.6	381	-0.1	7.0	2,567	-3.5
5	기초산업기계	283	-3.4	-2.7	274	-23.3	-3.2	2,050	-21.9
6	플라스틱제품	234	-12.4	-3.3	254	-7.9	8.5	1,701	-12.9
7	산업기계	209	-9.2	0.5	250	-7.7	19.6	1,422	-3.2
8	산업용전자제품	282	35.5	23.7	219	-15.6	-22.4	1,734	7.9
9	수송기계	202	19.1	-6.5	217	13.7	7.4	1,449	3.0
8	정밀기계	195	-0.4	-13.8	145	-54.9	-25.7	1,473	-14.2

자료: 한국무역통계

2.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인투자 늘어야

□ (동향) : ‘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, 감소로 반전

○ ‘14.2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403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46% 감소

-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4.1%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- 건수로도 19.2% 감소

○ 한편, 2014년 상반기 중 일본의 대한투자는 1,149백만달러로 전기 대비 14% 감소

- 이 역시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57.8%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
- 건수로도 14.8% 감소

○ 이같이 상반기, 2분기 모두 전체외국인 투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만큼 최근 대일투자환경의 악화 또는 악화조짐을 반영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(신고기준, 단위: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.1분기		2014.2분기		2014.상반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99 (-11.6)	746 (2.3)	80 (-19.2)	403 (-46.0)	179 (-14.8)	1,149 (-14.0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571 (-15.3)	5,062 (33.1)	583 (2.1)	5,272 (4.1)	1,154 (-9.9)	10,334 (57.8)

주: ()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, 자료: 산업부, 외국인직접투자 통계

□ (최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사례)

- 일본 스미토모세이카(住友精化)가 여수산단 중흥지구에 모두 1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, 2016년쯤 본격 가동 예정(2014.6.16)
- 스미토모세이카는 조만간 한국 내 투자를 위해 법인을 신설하고,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고흡수성수지 제조시설을 착공할 예정
- 일본 베름사도 2014년 9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의 3,300여㎡ 부지에 40억여원을 투입, 공장 착공예정(2014.7.16)

□ (시사점)

- 당분간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다가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됨
- 특히,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한 일본기업의 對 한국 투자가 중요한 데, 금년 4월 15일 서울저팬클럽 초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찬간담회에서는 51건의 건의 사항이 제안됨
 - * 서울저팬클럽: 주한 일본기업의 이익대변 및 친목도모를 위해 1997년에 설립, 회원 2,048명, 법인 422개사, 1998년부터 한국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활동 수행
- 특히 일본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(51개 건의사항중 23건), 지적권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특허법과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, 지적권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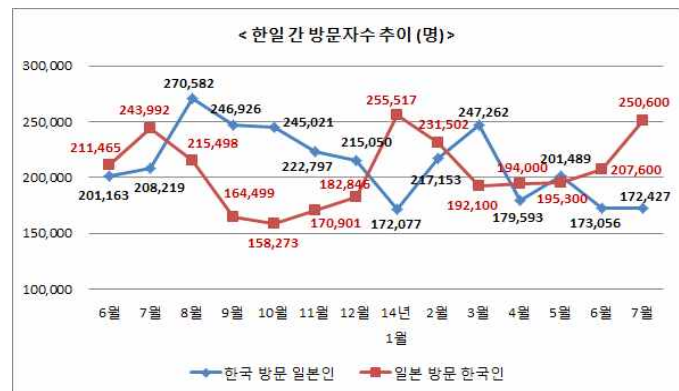
3. 일본인 한국방문 감소, 한국인 일본방문 크게 증가

□ (일본인 방한) ‘14.7월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 감소

- ‘14.7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72,427명으로 6월보다 0.4% 감소
 - 이는 중국인 입국자수가 692,053명으로 20.1% 증가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

□ (한국인 방일) ‘14.7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크게 증가

- ‘14.7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50,600명으로 6월보다 20.7% 증가
 - 엔화 약세 경향, 하네다(羽田) 공항의 국제선 증편, 일본의 관광 마케팅 활성화 등이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
- 그러나 금년 1-7월간중 일본 방문 총외국인 수는 크게 늘었는데도 (26.4%), 한국인 방문객수가 줄고 있는(-2.4%)것은 일본 방사능 이슈와 한일관계의 악화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



출처 : 한국관광공사, 일본정부관광국(JNTO)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4.7월~8월)

□ 국내기관

- 『최근 일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평가』 한국은행, 2014년 8월11일
<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d=2229>
- 『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』 kotra, 2014년 8월11일
<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main/GWMAIN010M.html>
- 『일본의 신서비스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』 산업연구원, 2014년 8월7일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12&state=view&idx=48182&recom=1491&ord=0
- 『일본의 국가·경제 구조혁신의 불확실성』 LG경제연구원, 2014년 8월4일
<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list.asp>
- 『일본 저출산재앙이 인력부족으로 현실화_기업의 대응책은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4년 7월28일
<http://iit.kita.net/>
- 『일본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논의 및 시사점』 한국은행, 2014년 7월25일
<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d=2229>

□ 일본기관

- 『제조업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에 대한 대응』 경제산업성, 2014년 8월22일
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eizou/pdf/002_01_00.pdf
- 『2014년도 일본 산업동향』 미즈호은행, 2014년 8월22일
<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sangyou/m1046.html>

- 『신흥국·개도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프레젠텔 변화: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비교』
일본종합연구소, 2014년 8월13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7560.pdf>
- 『착실히 늘고 있는 아시아국가로부터의 대일직접투자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4년 8월13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7561.pdf>
- 『일본경제중기예측 : 일본의 성장력과 새로운 과제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2014년 8월12일
http://www.dir.co.jp/research/report/japan/mloutlook/20140811_008837.pdf
- 『일본의 수출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적은 이유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4년 8월12일
http://www.rieti.go.jp/jp/columns/a01_0404.html
- 『2014년판 JETRO세계무역투자보고서 : 일본을 국제비즈니스 순환의 기점으로』
JETRO, 2014년 8월8일
<http://www.jetro.go.jp/news/releases/20140807062-news>
- 『암반규제와 개정성장전략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2014년 8월6일
http://www.nri.com/~media/PDF/jp/opinion/teiki/kinyu_itf/2014/itf_201408_3.pdf
- 『고령화와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분석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4년 8월1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4fy/E004234.pdf
- 『2014년도 경제재정백서 : 소생하는 일본경제, 확대가능성』 일본내각부, 2014년 7월26일
http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4/index_pdf.html

2.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(8월)

일자	주요 행사 내용
1	•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·핵연료안전전문심사회(원자력규제위원회)
4~5	• TPP 미일 실무급 협의
5	• 원전 신규제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회의(원자력규제위원회)
6	• 6월 경기동향지수 속보(내각부)
7	• 7월말 외환준비고(재무성)
7~8	• 일본은행 정책위원회·금융정책결정회의
8	• 6월 국제수지(재무성)
11	• 7월 소비동향조사(내각부)
12	• 6월 광공업생산지수 확보치(경산성)
13	• 4~6월기 GDP 속보치(내각부)
14	• 6월 기계수주(내각부)
18	• 참의원선거제도협의회 • 원자력손해배상·폐로 등 지원기구 발족
19	• 특정원자력시설감시·평가검토회(원자력규제위원회)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(경산성)
20	• 7월 무역통계(재무성) • 7월 방일 외국인관광객 통계(일본정부관광객)
20~21	• APEC 고위급 회의
21	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소위원회(경산성) • 산업구조심의회 총회(경산성)
22	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요금심사 전문소위원회(경산성)
25	• 한중일 물류장관회의
25~28	• 모테기 경산대신, ASEAN경제장관회의 참석
26	• 日ASEAN 경제장관회의 • ASEAN+3 경제장관회의
27	• RCEP 각료회의 •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건축재료 등 판단기준 워킹그룹(경산성) • 원자력규제위원회
29	• 7월 소비자물가지수(총무성) • 7월 완전실업자율(총무성) • 7월 유효구인재율(노동후생성) • 7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치(경산성)